

현대 남성 예복 현황과 디자인 기획

김 정 희·조 효 숙·임 현 주*

경원대학교 의상학과 교수
경원대학교 의상학과 교수
경원대학교 의상학과 박사과정*

요 약

현대사회는 다양성과 개성을 추구하며 파티문화의 증가와 결혼양식의 변화에 따라 남성예복에 있어서도 새로운 디자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용도 즉, T.P.O.에 맞는 남성 예복을 바르게 제시하여 올바른 예복 문화를 주도함과 동시에 고급 예복의 대중적 저변 확대를 위하여 기본 형태에 충실하면서도 현대인의 감성과 기호에 맞는 다양한 예복 디자인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 방법은 문헌조사와 실태조사를 병행하였는데 근현대 남성 예복의 역사와 종류를 조사하고 국내외 남성예복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디자인 컨셉을 정하고 디자인 프로세스에 따라 최근 활용되는 패턴을 고려하여 현대 남성의 취향에 맞는 새로운 예복디자인을 기획하였다. 새로운 실루엣과 디테일에 따른 디자인은 일러스트와 도식화로 표현하고 예복의 종류별 적합한 소재선택과 코디네이션을 표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식예복에 해당하는 모닝코트, 턱시도와 약식예복에 해당하는 디렉터즈 슈트, 3-피스 슈트, 블레이저 등 목적에 맞는 남성 예복을 제안함으로써 상황에 맞는 예복의 용도를 명확히 하고 예복의 영역을 확장하는 일에 일조하고자 한다.

주제어: 남성예복 디자인, 모닝코트, 연미복, 턱시도, 슈트

I. 서론

현대사회는 파티문화가 매우 발달하고, 결혼 양식에 있어서도 끊임없는 변화와 다양성을 추구한다. 이에 패션의 고전으로 자리하여 시대를 초월하는 신뢰감을 주는¹⁾ 남성예복(禮服)분야도 기존의 공식이나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나 개성을 중시하며 다양한 형태로 발전되고 있다. 고전(classic)은 외관상 본질적인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내적 변화를 진행하고 시각적 강조점을 변화시키며 사회적 의미를 변화시키는 특징을 지닌다.²⁾ 이러한 측면에서 그동안 커다란 변화가 없어 보였던 남성예복은 소비자의 인식 전환과 함께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받아들여, 희소성을 추구함과 동시에 품격을 유지하면서 보다 새롭고 다양한 소재와 디자인을 지닌 예복으로 그 전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제품기획 및 생산단계에 참여하여 자신을 취향을 반영하는 등 개성과 다양성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욕구가 점차 주문형 예복시장의 저변을 확대하여 예복문화를 한층 성숙시키리라 예상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용도 즉, T. P. O.에 맞는 남성 예복을 바르게 제시하여 올바른 예복 문화를 주도함과 동시에 고급 예복의 대중적 저변 확대를 위하여 기본 형태에 충실하고 현대인의 감성과 기호에 맞는 다양한 예복 디자인을 제시하는 것이다. 또한 예복이 사용되는 영역에는 결혼식, 파티, 연주회 뿐 아니라 호텔 혹은 국내외 공식행사의 유니폼 등으로 그 활용도가 매우 광범위한데, 목적에 따라 디자인과 소재의 차이를 두어 우리나라 실정과 착용자의 상황에 맞는 예복을 제시함으로써 예복의 용도와 영역을 확장하는 결과를 가져 오리라 본다.

연구 방법은 문헌조사와 실태조사를 병행하였다. 먼저 II단원에서 문헌적 조사방법에 의한 이론적 배경으로 근현대 남성 예복의 역사와 종류를

살펴보았다. 또한 국내외 남성예복 시장 조사를 위하여 국내외 사례 및 컬렉션 사진자료를 통하여 트렌드를 분석하였다. III단원에서는 II단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디자인 컨셉을 정하고 디자인 프로세스에 따라 최근 활용되는 패턴을 고려하여 현대 남성의 취향에 맞는 새로운 예복디자인을 일러스트와 도식화로 제시하였다. 새로운 실루엣과 디테일은 일러스트와 도식화에 포함시키고 동시에 예복의 종류에 따라 적합한 소재사용과 코디네이션을 표로 제시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남성 예복의 역사

1) 서양 예복의 유래

서구의 역사를 살펴볼 때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 사이에 남성복식의 혁신적인 변화가 이루어졌다. 이전의 귀족적인 스타일을 선호하던 남성복은 산업화와 영국의 영향을 받으며 실용적인 근대 남자 복식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남성복의 기본은 <그림 1>과 같이 상의(frock), 조끼(gilet), 바지(pantalon)가 한 벌을 이루었다. 상의는 길이가 엉덩이 근처까지 오고 단추로 여밀 수 있는 앞여밈이 다소 둥글려진 사선재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조끼는 예복으로 사용되고 현재와 거의 비슷한 형태이지만 작은 칼라가 달린 것이 차이점이며 상의나 바지와 같은 색조의 천을 사용하였다. 바지는 헐렁하고 긴 형태로 현재에 이르도록 변화가 없는 데 바지폭이 늘거나 좁아지거나 혹은 바짓단의 커프스(cuffs) 부착 등의 변화가 있다.³⁾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형태의 남성예복은 18세기 영국에 근원을 두고 있다. 18세기 이후 영국이 산업국가로 급부상하면서 남성예복은 이전의 프랑스가 중심이 되었던 화려하고 우아함을 강조하던

여성복식과는 거리가 있는 실용적이면서 품격을 잃지 않는 멋을 남성복에 담게 되었다.

예복의 대표주자 격인 연미복은 근대의 옷 뒷자락이 길게 늘어진 모양의 1780년 스커티드 코트(skirted coat)에서 그 원형을 찾을 수 있는데, 그 모양이 조금씩 변하여 <그림 2>와 같이 1800년대 초반에는 오늘날의 연미복(tail coat)과 거의 같은 형태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연미복은 귀족사회의 사교모임에는 빠짐없이 등장하는 예복으로 사랑받기 시작하였는데 당시만 해도 예복은 연미복 한 가지밖에 없었으므로 밤낮의 구별 없이 애용되었으며 그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해 하늘색, 붉은색 등 여러 가지 색깔로 지은 것이 유행했다고 한다.⁴⁾

19세기 이전 구미에서는 하루에 두 세 번씩 아침, 낮, 밤으로 의상을 갈아입는 습관이 있었는데 지위와 계급에 따라 엄격하고 빈번하였다. 포멀웨어는 무엇보다도 고전적 습관을 중시하므로 이 전통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또 다른 이유는 조명의 문제로, 주간의 자연광과 야간의 조명 아래서 입는 복장이 달라야 한다는 사고방식 때문이다.⁵⁾ 예복의 밤, 낮 구별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1810년대 중반 프록코트(frock coat)가 등장하면서부터였다. 근엄한 격식을 강조한 프록코트는 낮의 집무복에서 점차 예복으로 발전해갔고 밤에

도 똑같은 예복입기를 다소 꺼렸던 당시의 귀족들은 프록코트를 낮의 예장으로, 연미복은 밤의 예장으로 구별하여 입게 되었다. 이 프록코트는 외투처럼 보이는 답답한 앞자락을 잘라버린 모양으로 발전하여 1850년대 썸에는 <그림 3>과 같이 컷 어웨이 코트(cut away coat), 즉 오늘날의 모닝코트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예복은 주로 귀족의 근엄함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던 것인데 마침내 1866년 텍시도가 등장하면서부터 점점 맵시를 중시하는 경향을 띄기 시작하고 근엄함보다는 사교 생활의 예의표현 수단으로 인식되어져 갔다. 따라서 1900년대 초반에는 모닝코트를 대신한 디렉터즈 슈트(director's suit)가 생겨나게 되었다.

그 후 100여 년 동안 그 이름은 같을지라도 예복들 각각의 모양은 수없는 변화를 겪어오고, 특히 최근에는 예복의 기본 모양은 그대로 살리면서도 개성을 가미한 예복과 다소 화려한 색상이나 패턴의 연관 상품들이 크게 사랑받고 있다.

2) 국내 서양 예복의 도입

우리나라에서 양복을 가장 먼저 착용한 사람들은 외국인 사절단, 외교관 등의 수행원으로 외국에 나가 서양문물을 자연스럽게 수용한 개화 인사들이다. 이들은 1870년대부터 서양 남성들이 평상



<그림 1> 1802년 남성복
(출처: <http://www.samsungdesign.net>)



<그림 2> 1849년 남성복
(출처: <http://www.samsungdesign.net>)



<그림 3> 1885년 예복이 된
프록코트와 모닝코트
(출처: 『서양복식문화사』, 1997, p.351)



<그림 4>
복장개정령에 따른
황제의서구식 대례복
(출처: 『우리옷 이천년』,
2001, p.120)



<그림 5>
혼례복으로 입었던 연미복
(출처: 『우리옷 이천년』,
2001, p.121)

복으로 입던 색 코트(sack coat)를 양복으로 착용하였다. 그 후 1894년 갑오개혁과 단발령이 시행되면서 국내 서양 예복이 공식적으로 도입되었다. 최초의 기록은 1895년 군복과 경찰복이 양복으로 바뀌는 것을 시작으로, 1898년 <그림 4>와 같이 황제의 대례복을 서구식으로 바꾸었다. 1899년에 외교관복을 양복화하고, 1900년에는 칙령 14호로 문관복장규칙을 정하여 조선개국 509년까지 착용해 온 관복 단령(團領)이 서구풍의 양복으로 바뀌게 되며 관복이 계속 감소되었다. 이 때 반포된 문관복은 대례복, 소례복, 상복의 세 종류인데 대례복은 18세기 유럽에서 입혀진 궁중예복을 모방한 연미복인 프록코트(frock coat)로 유럽 각국에서 착용되던 귀족의 예복을 참고로 만들었다. 개화기 이후에는 드물지만 <그림 5>와 같이 혼례복으로 연미복을 입기도 하였으며 상복(常服)인 새빌 로(Savile Row: sack coat)는 유럽 각국 시민들의 평상복을 본 따 만들었다.

2. 남성 예복의 분류

예복(禮服, formal wear)은 공식적인 의상으로서 특별한 행사나 예식을 위해 입는 정장을 말한다. 정장을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는 색상이나 소재, 디자인은 물론 의식의 성격에 맞는 소품이나 장신구까지 엄격히 정해진 격식에 따라야 한다. 서양

예복은 대부분은 18세기 프랑스의 궁정귀족(宮廷貴族)의 복장 형식을 원형으로 전해 내려오는 것인데, 특히 영국에서 크게 발전하였다. 남성의 서양식 예복은 연주복으로 많이 입었지만 지금은 결혼식 예장 및 예복, 파티복으로 즐겨 입는데 시간과 장소, 목적에 적합한 옷을 격식에 맞춰 입어야 한다.

서양예복은 본래 의례의 경중(輕重), 공사(公私), 또는 착용하는 사람의 신분이나 계급 등에 따라 대례복과 통상예복으로 구별되며, <표 1>과 같이 주간과 야간에 따라서도 구별된다. 그러나 시대의 변천과 더불어 점차 비형식화 되어 지금은 정예장(most formal wear)인 모닝코트(morning coat)와 이브닝코트(evening coat)또는 연미복(tail coat), 턱시도(tuxedo), 준예장(semi-formal wear)인 디렉터즈 수트(director's suit)와 팬시 턱시도(fancy tuxedo), 칵테일 수트(cocktail suit) 그리고 약예장(informal wear)인 블랙 수트(black suit)와 다크 수트(dark suit), 팬시 수트(fancy suit) 등으로 나뉜다.

<표 1> 남성 예복의 분류

구분	종류	남성복	
주간	권위적인 포멀웨어	정식예복	모닝코트(화이트타이) 프록수트
		준예복	프록수트
	포멀웨어	약식예복	짙은색의 수트 팬시 수트
야간	권위적인 포멀웨어	정식예복	연미복 턱시도(블랙타이)
		준예복	팬시 턱시도 칵테일 수트 프록 수트
	포멀웨어	약식예복	짙은색의 수트 팬시 턱시도

1) 정식 예복

(1) 모닝코트 (morning coat)

모닝코트는 최고의 격식을 차리는 자리에 참석



<그림 6>
19세기 부유한
비즈니스맨의 모닝코트
(출처: <http://www.historyinthemaking.org>)



<그림 7>
미국 법무장관 마이클
무카시(Michael Mukasey)의
모닝코트와 스트라이프
팬츠 착용모습
(출처: <http://www.washingtonpost.com>)



<그림 8>
검정과 흰색의 Houndstooth
면 소재 모닝코트
(출처: <http://www.ohiochannel.org>)

하기 위한 복장으로 국가간 의식, 결혼식, 고별식 또는 국제적 리셉션 등 낮 시간대에 착용하는 정식 예복이며, 여성의 애프터눈 드레스(afternoon dress)와 동격이다. <그림 6>에서와 같이 주로 결혼식에서 신랑이 입는 회색 모닝코트가 최고의 성장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림 7>과 같이 전통적으로 국가 간의 공식 회합에서는 보통 검정색을 착용한다.⁹⁾ 앞부분에서 뒤로 갈수록 경사가 크게 사선으로 재단된 상의는 컷어웨이(cutaway)라고도 하는 뒤의 깊은 센터벤트(center vent)가 특징이다. 상의와 베스트는 검은색의 같은 천으로 한다. 바지는 바짓단이 없고 검정과 회색 줄무늬가 있는 바지를 입으며,¹⁰⁾ 모직 등의 스트라이프 천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싱글모닝코트(single morning coat)라 한다. 결혼식 등의 경사 시에는 벨트를 회색이나 흰색으로 하기도 한다.

소재는 캐시미어(cashmere), 텍시도 클로스(tuxedo cloth), 도스킨(doeskin) 등 격조 높은 고급 소재를 사용한다. 여름용으로는 모헤어(mohair), 도스킨 등의 소재를 사용한다.

셔츠는 흰색 무지천으로 윙칼라나 소프트 칼라도 하고, 커프스는 더블 쪽이 바람직하다. 넥타이는 검은색과 흰색의 줄무늬나 체크무늬 또는 은색

으로 하며, 상중에 입는 예복의 경우는 검은색으로 하고, 예장용 아스코트 타이를 착용한다.

커프스 버튼(cuffs button)은 금, 진주 등 보석을 사용하며, 구두는 검은색으로 줄을 매는 타입과 슬리퍼타입의 것이 있는데 가장자리 데가 나와 있지 않아야 한다. 포켓 행거티프는 흰색의 린넨이나 실크를, 장갑은 흰색을 사용한다. 모자를 착용하는 경우는 <그림 8>과 같이 실크햇이나 중산모(中山帽) 또는 검정 소프트햇 중에서 하나를 쓴다.

(2) 연미복 (tail coat, evening dress)

연미복은 뒤 형태가 제비 꼬리와 같은 모양에서 유래한 명칭으로, 테일 코트(tail coat) 혹은 프록드레스(frock dress)라고 불린다. 테일 코트는 야간(오후 6시 이후)에 착용하는 최고의 정식 예복으로 외교관계 리셉션 등 국가의 공식적인 행사나 음악회에서 연주자들이 착용하며 여성의 로브데콜레나 이브닝드레스와 동격이다.

<그림 9>와 같이 앞길은 팔만 근처에서 끝나는 짧은 길이이며 뒷길은 무릎까지 직선으로 길게 내려오며 뒷중심에 절개선이 있게 재단된다. 품은 단추를 채운 듯이 가슴에 꼭 맞는데, 실제로 여미지 않는 장식 단추가 좌우 3개씩 붙어있고 소매도



<그림 9>
연미복(테일 코트)
(출처: 'Dressing the Man', 2002, pp.248-251)



<그림 10>
실크소재의 피그드 라펠 (출처: 'Dressing the Man', 2002, p.255)

좁게 재단된다. 칼라는 <그림 10>과 같이 피그드 라펠(peaked lapel)이며 라펠에 실크를 쓴다.¹¹⁾

소재는 모닝코트와 비슷하며 고급스러운 느낌이 드는 중후한 천을 사용한다. 셔츠는 흰색의 무지천으로 하며 스탠드칼라의 끝부분을 윙칼라처럼 처리하며, 넥타이는 흰색의 나비넥타이를 착용한다. 장갑은 흰색의 사슴가죽을 사용하며, 구두는 검은색의 에나멜 구두를 착용한다. 포켓 행거치프는 흰색의 마나 견을 사용하며, 셔츠 단추는 진주나 흰색 조개 등 흰색으로 하는 것이 좋다. 모자를 착용하는 경우에는 실크햇을 착용한다.

초대장에 화이트 타이 착용이라고 쓰여 있으면 연미복을 착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3) 텍시도 (tuxed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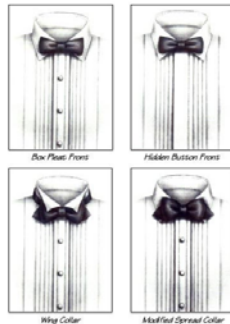
<그림 11>과 같은 텍시도는 디너 재킷, 이브닝 재킷이라고도 불리며, 야간에 착용하는 정식 예복으로 여성의 이브닝드레스와 동격이다. 결혼식에 텍시도를 입은 신랑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엄밀히 말하면 텍시도는 밤의 예장이므로 낮에 치러지는 결혼식에 입는 것은 잘못된 에티켓이라고 볼 수 있다. 코디네이션의 기본은 검정색과 흰색이며, 여름에는 흰색의 텍시도를 착용한다. 최근엔 검은색 텍시도뿐만 아니라 정예장으로 미드나잇블루(midnight blue)나 초콜릿브라운(chocolate brown) 등의 색상도 사용하고 있다.¹²⁾ 싱글이나 더블 모두 적합하며, 예복용의 실크 베스트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림 12>와 같이 근래에는 실크 소재의 커머번드(cummerbund)하나로 단순화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커머번드 착용시 플리즈(pleats)는 반드시 위로 향하게 입는 것이 원칙이다.¹³⁾ 칼라는 피그드 라펠이나 쇼울 칼라로 하며 실크를 붙인다. 텍시도 바지는 슈트 바지보다 슬림하고 하이웨이스트로 디자인하며 바짓단에 커프스를 대지 않는다.¹⁴⁾ 색상은 검은색이나 감색으로 하고 옆선에 덧넌 공단띠(dress braid)를 대고 박아 장식을 한다. 소재는 모헤어, 배러시아, 텍시도 크로스 등이 적당하며, 야간에 착용하므로 약간의 광택이 있는



<그림 11>
텍시도 착장 모습
(출처: 'Nordstrom Guide to Man's Style', 2009, p.140)



<그림 12>
텍시도 팬츠와 커머번드
(출처: 'Dressing the Man', 2002, p.259)



<그림 13>
텍시도 셔츠와 타이
(출처: <http://www.raresplendors.com>)



<그림 14>
텍시도 액세서리
(출처: 'Nordstrom Guide to Man's Style', 2009, p.138)

소재도 좋다.

셔츠는 회색의 윙칼라와 레귤러 칼라 셔츠가 기본이며, 윙칼라는 칼라의 끝이 접힌 모양이나 칼라의 크기 등이 각각 다른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다. 가슴부분에 여러 겹의 주름이 장식되어있는 것도 예복용 셔츠로 많이 이용된다. 셔츠 앞단추와 소매의 커프스 링크(cuff links)는 같은 소재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오팔, 다이아몬드, 진주 등이 많이 사용되어 왔다. 또한 커프스 링크는 시계와 어울리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데, 골드(gold) 시계에는 골드를, 실버(silver)시계에는 실버 소재를 사용하는 등 소재 매치(match)에도 신경을 쓰는 것이 원칙이다.¹⁵⁾ 셔츠 단추는 속단추로 처리하기도 한다. 턱시도를 블랙타이(black tie)라고 부르는데, 이는 타이를 <그림 13>과 같이 검은색의 보우타이를 매기 때문이다. 포켓스퀘어¹⁶⁾는 요즘 현란한 무늬의 실크가 선호되고 있기는 하나 예복의 정통 원칙에 준하면 린넨 소재의 흰색 포켓스퀘어를 사용하는 것이 정석이다. 구두는 <그림 14>와 같이 검정색 에나멜가죽의 펌프스 스타일로 바닥이 얇은 드레시한 것으로 착용한다.

2) 준예복

수트(suit)란 같은 천이든 아니든 원래 한 벌로 입을 것을 전제로 디자인 된 2, 3종의 의복의 조합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남성 수트는 싱글이나 더블 재킷에 바지의 조합, 또는 베스트를 더한 것을 말한다. 17세기에 최초로 등장한 수트라는 용어의 어원은 라틴어인 *squit*가 프랑스에 차용되어 *siwte*가 되고, 중세 영어의 *suite*, *seute*를 거쳐 *suit*가 되었다.¹⁷⁾

(1) 블랙 수트 (black suit)

블랙 수트는 낮과 저녁의 어느 시간대에도 착용할 수 있는 준예복으로, 근래 모닝 코트나 턱시도를 대신하여 광범위하게 착용되고 있다. 싱글의

경우에는 한 줄로 단추를 달며, 더블의 경우에는 두 줄로 네 개 혹은 여섯 개의 단추를 단다. 베스트는 회색이나 체크무늬 등 개성적으로 입을 수 있다. 소재는 캐시미어, 턱시도 크로스, 도스킨 외에 배러시아 등도 사용된다. 셔츠는 흰색의 소프트칼라로 더블 커프스가 바람직하다. 때에 따라 드레스 셔츠나 무늬 있는 천도 사용된다. 넥타이는 은회색이나 흰색과 검은색의 무늬가 있는 것을 맨다. 액세서리 및 구두는 모닝코트에 준하나 낮 시간대에 착용시는 광택이 적은 것이 바람직하다.

(2) 팬시 턱시도 (fancy tuxedo)

팬시 턱시도는 야간의 준예복으로 착용되며, 여성의 세미 이브닝드레스와 동격이다. 기본 턱시도보다 감각적이며 색상과 소품으로 개성 있는 연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와인(wine) 색이나 미드나잇블루 컬러의 턱시도를 입는다면 주머니나 소매 끝만 검은 색을 댄 아이보리 턱시도 등은 두드러지지 않으면서 색다른 멋을 내기에 충분하다. 상하 다른 경우에는 바지는 검은색이나 곤색으로 하며, 옆선은 한 줄로 박아 장식한다. 소재는 캐시미어, 턱시도 크로스, 배러시아, 도스킨, 실크, 벨벳 등을 사용하며, 무지의 선뿐만 아니라 큰 체크무늬나 자가드 등을 사용해도 좋다.

셔츠는 소프트칼라, 윙칼라 등이 사용되며, 디자인도 단순한 것에서 드레시한 것까지 광범위하게 착용된다. 색은 흰색과 파스텔 색조를 사용한다. 넥타이는 보우 타이, 크로스오버 타이 등을 사용하며, 크로스오버 타이는 소프트칼라의 셔츠에만 한정되어 사용된다. 액세서리에 사용되는 보석은 흑진주, 마노 등이 적합하다. 구두는 검은색 이외의 것도 전체의 조화를 생각하며 선택할 수 있다.

(3) 칵테일 수트 (cocktail suit)

<그림 15>와 같은 칵테일 수트는 그 명칭처럼



<그림 15>
카테일 슈트
(출처: <http://www.esquire.com>)



<그림 16>
짙은색 슈트
(출처: 『Nordstrom Guide to Man's Style』, 2009, p.39)



<그림 17>
다양한 종류의 팬시 슈트
(출처: <http://www.style.com>)

저녁에 시작되는 카테일파티 등 복장에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으며 참석하는 경우 입는 복장으로, 여성의 카테일 드레스와 동격이다. 싱글브레스트, 더블브레스트 어느 쪽도 좋으나 싱글의 경우에는 베스트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소재는 모헤어, 라메, 실크 등이 적당하며, 야간 시간대를 의식하여 소재 자체에 광택이 있는 것을 선택하면 좋다. 저녁 시간대부터 입는 것이므로 화려한 분위기로 연출할 수 있는 것이 좋다. 액세서리는 전체의 코디네이션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선택한다. 브로치, 타이핀 등이 장식용으로 사용된다. 포켓스퀘어는 실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두는 슬리퍼 스타일, 펌프스 스타일 등이 적합하다.

3) 약식 예복

슈트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인 재킷은 여밈에 따라 싱글 브레스티드(single-breasted)와 더블브레스티드(double-breasted)로 나누어지며 칼라(collar)는 테일러드 칼라로 하고 포켓, 트임(vent), 단추 등의 디테일을 가진다.¹⁸⁾ 상의와 하의와의 관계는 대부분의 사전에서 ‘어울리는’ 혹은 ‘같은 직물로 만들어진’으로 정의 내리고 있으나 최근에는 상하 같은 직물이 아닌 경우에도 슈트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어,¹⁹⁾ 반드시 같은 직물로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어울리는’ 조합이면 슈트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1) 짙은색 슈트 (dark suit)

짙은색 슈트는 새롭게 등장한 정장으로서 주야의 구분 없이 비교적 광범위하게 착용된다. <그림 16>과 같이 색은 미드나잇블루나 다크블루이며, 싱글 브레스트나 더블브레스트 어느 쪽도 좋으나 싱글의 경우에는 베스트를 착용하여 보다 포멀한 느낌을 주는 것이 좋다.

소재는 케시미어, 모헤어, 개버딘 등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드레시한 것이 적합하다. 셔츠는 흰색의 소프트칼라 외에 더블칼라, 핀홀칼라 등 광범위하게 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다. 넥타이도 은회색뿐만 아니라 엘레강스한 느낌의 모든 색상을 댈 수 있으며, 포켓스퀘어도 전체적인 코디네이션을 고려하여 세세하게 신경 쓴다면 포멀한 느낌을 줄 수 있다. 구두는 가장자리 테가 나와 있지 않는 거북이 스타일 등의 검은색이 무난하다.

(2) 팬시 슈트 (fancy suit)

팬시 슈트는 무지 또는 무늬있는 천으로 된 싱글 혹은 더블브레스트로 된 슈트이다. 싱글의 경우에는 베스트를 조합하여 쓰리피스로 착용하는 것이 좋다. 칼라는 피그드가 바람직하나 다양한

유행을 받아들여 브이존의 연출로 포멀한 감을 내면 좋다. 야간에 착용하는 경우에는 광택이 있는 소재도 좋다. 소재는 모헤어, 개버딘, 배러시아, 섹소니 등이 적합하다. <그림 17>과 같이 색상은 회색계열, 밤색계열, 카키색 등이 좋고, 무지천 외에도 스트라이프, 체크 무늬가 있는 것도 적당하다. 셔츠는 소프트칼라나 더블칼라, 핀홀 칼라 등으로 변화를 줄 수 있다. 구두는 거북이 스타일이 일반적이기는 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부츠 등도 착용할 수 있다.

3. 현대 남성 예복 브랜드 현황

현재 고부가가치의 패션의류가 전체 의류 수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10% 수준이며, 예복은 고부가가치적 측면에서 높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남성 예복과 관련된 국내의 글로벌 패션브랜드 구축을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브랜드의 남성예복시장은 아직까지 활성화 되지 않는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참고로 <표 2>와 같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해외 남성복 시장규모를 분석²⁰⁾한 결과, 해외 글로벌 브랜드의 예복 시장은 이미 안정화 된 단계에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국내의 경우 내셔널 브랜드나 고급맞춤 예복에서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분과 해외 글로벌 브랜드의 진입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수입예복을 선택하는 소비 이탈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내에서도 남성 결혼 예복 수요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맞춤 양복점, 웨딩 슈 중심 구조에서 탈피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예복의 종류가 다양한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예복의 개념이 혼동되어 때와 장소에 맞는 예복을 적절히 입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상황에 따라 격식에 맞는 적합한 디자인의 제시가 필요하다.

남성 예복과 관련된 선행 연구(김은경, 1988; 안

현주, 1995; 이미정, 1985; 양숙향, 1989; 조명숙, 1991; 최연정, 1991)²¹⁾로 ‘남성 결혼 예복 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와 ‘시대복식 연구 및 이를 활용한 디자인’ 등이 있는데, 다양한 디자인 연구가 시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연구가 디자인 개발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소비자의 다양한 니즈(needs)를 반영함과 동시에 업계의 상황과 우리나라 소비실정에 맞추어 다양한 소재와 새로운 디자인의 예복디자인을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인 산학협동의 좋은 선례를 남기고자 한다.

<표 2> 남성복 시장현황 및 사업화 전망

구 분	현재의 시장규모 (2009년)	예상 시장규모 (2011년)
세계시장규모	약 20조원	약 22조원
한국시장규모	1조 7천억원	1조 9천억원

현재 우리나라 남성예복산업현황은 <표 3>과 같이 크게 국내와 해외수입브랜드로 나눌 수 있으며, 이를 다시 내셔널 브랜드(national brand, NB), 디자이너 브랜드(designer brand, DB)와 고급맞춤복으로 분류할 수 있다.²²⁾

내셔널브랜드는 의류제조업체가 상표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유통조직이 국내 전지역에 형성되어있다.²³⁾ 엘지, 삼성, 나산 등과 같은 대기업에서 개발한 상품에 독자적 이름과 상표를 붙인 제조업자브랜드를 말한다. 대중시장(mass market)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소비자 인지도와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

디자이너 상표는 디자이너를 소유주로 하며, 디자이너의 이름을 상표명으로 하는 경우이다. 디자이너 브랜드는 디자이너 자신의 창의적인 디자인 능력을 중요 요인으로 삼으며, 대부분 특징적인 개성이 강한 브랜드다. 고품질 명품 브랜드가 대부분 디자이너 상표에 속한다.

국내의 내셔널브랜드는 대표적으로 제일모직의 란스미어(Lansmere), 갤럭시(Galaxy), 로가디스(Rogatis), 빨쨌레리(Pal Zileri), 지방시(Givenchy) 등과 LG패션의 마에스트로(Maestro), 닥스(DAKS) 그리고 코오롱패션의 캠브리지멤버스(Cambridge Members) 등이 있다. 이들 브랜드의 특징은 매 시즌 예복을 선보이며, 정식 예복 보다는 포멀한 수트 위주로 판매하고 있다. 브랜드 인지도 위주로 홍보함으로써 예복 본연의 전문성보다는 일반적인 정장의 개념이 강하다. 백화점 유통은 MD개편의 영향으로 남성복 입지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 예식뿐만 아니라 일상복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스타일에 대한 판매를 강조하는 새로운 유통방법이 연구되어야 한다. 롯데백화점의 경우 ‘다비드 프로젝트’의 예와 같이 특별한 프로젝트를 통해 대중을 교육시키는 마케팅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기존의 혈령한 정장 대신 날씬하고 스타일이 살아있는 정장을 입어보라는 한국 남성들에 대한 캠페인성 마케팅으로 이를 통해 슬림한 라인의 남성 정장 매출

이 전년대비 20% 상승하였으며 기존 정장의 구매 연령층이 낮아지는 효과로 20대 고객 비중을 15% 까지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고급맞춤브랜드는 세기테일러, 레리치(Lerici), 리젠트(Regent) 등을 들 수 있다. 국내 맞춤 전문점의 특징은 대부분 웨딩 업체들과의 연결로 진행되고 있는데 정통 방식을 고수하는 곳이 많아 기간은 오래 걸리나 원하는 옷을 100% 가까이 제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고가로 제안되어 소비자의 부담이 큰 단점이 있다.

디자이너 수트 브랜드로는 장광효 카루소(Carus), 타임 옴므(Time Homme), 솔리드 옴므(Solid Homme)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브랜드의 특징은 젊은 감각에 맞는 디자인을 선보여 여성들의 선호도가 높은 편이나, 정통 예복에서 크게 벗어나는 경우가 많다.

해외브랜드는 이탈리아, 영국, 일본, 미국시장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이탈리아 남성예복디자인의 특징은 부드러운 어깨선, 패드 없이 유지되는 실

<표 3> 국내외 남성복 대표 브랜드

구분	국내브랜드			해외수입브랜드		
	내셔널 브랜드	디자이너 브랜드	고급맞춤 브랜드	디자이너 브랜드	고급맞춤 브랜드	국가
종류	제일모직 (란스미어, 갤럭시, 로가디스, 빨쨌레리, 지방시)	장광효 카루소	세기테일러	에르메네지ildo제냐	체사레 아톨리니	이탈리아
				휴고보스	브리오니	
				조르지오아르마니	키톤	
				톰포드	루치아노 바르베라	영국
				리버라노&리버라노		
				해켓던던	헌츠먼	
	LG패션 (마에스트로, 닥스)	타임옴므	레리치	빈즈 에프	링 자켓	일본
				타케오키쿠치	유나이티드 애로우즈	
	코오롱 (캠브리지 멤버스)	솔리드옴므	리젠트	쉽스	사르토리아 프로메사	미국
				랄프로렌	브룩스브라더스	
제이프레스						

루엣 등을 특징으로 하며, 디자이너브랜드는 에르메네질도 제냐(Ermenegildo Zegna), 휴고 보스(Hugo Boss), 조르지오 아르마니(Giorgio Armani), 랄프 로렌(Ralph Lauren), 톰 포드(Tom Ford) 등이 있고, 고급맞춤브랜드로는 체사레 아톨리니(Cesare Attolini), 브리오니(Brioni), 키톤(Ki-ton), 루치아노 바르베라(Luciano Barbera), 리버라노 & 리버라노(Liverano & Liverano) 등이 있다.

영국 남성복은 고급 소재를 사용하고, 정통 방식에 입각한 봉제기법과 강건한 어깨와 가슴라인을 특징으로 한다. 영국 디자이너 브랜드는 헤켄 런던(Heckett London), 폴 스미스(Paul Smith), 버버리(Burberry) 등이 있으며, 고급맞춤브랜드로는 헌츠먼(Huntsman), 기브스 & 호크스(Gives & Hawkes), 리처드 제임스(Richard James), 티모시 에버레스트(Timothy Everst), 앤더슨 앤 셰퍼드(Anderson & Sheppard) 등이 있다.

일본 남성예복은 서양 문물의 적극적인 수용으로, 이태리 스타일을 일본인에 맞게 재해석하였다. 좁은 어깨와 암홀 등이 디자인의 특징이다. 타케오키쿠치, 빔스 에프(Beams F.), 쉽스(Ships) 등의 디자이너 브랜드가 있으며, 링 자켓(Ring Jacket), 유나이티드 애로우즈(United Arrows), 사르토리아 프로메사(Sartoria Promessa) 등의 고급맞춤 브랜드가 있다.

미국 남성예복은 기본에 충실한 디자인으로 남성적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각진 어깨와 가슴라인, 센터벤투 등이 특징이며, 패드의 사용이 이태리 보다는 많은 편이다. 바지의 경우도 슬림함 보다는 여유 있는 실루엣들이 많이 보이며, 너치드 라펠에 투버튼, 센터벤투에 여유있는 암홀과 허리선, 윈터 팬츠가 대표적인 미국 수트라고 할 수 있다. 디자이너 브랜드로는 랄프 로렌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고, 고급맞춤 브랜드로는 브룩스 브라더스(Brooks Brothers)와 제이프레스(J. Press) 등이 있다.

이탈리아의 에르메네질도 제냐의 경우 일부 맞

춤을 진행하고 있기도 하나, 이들 해외수입 브랜드의 특징은 주로 브랜드 인지도를 통해 마케팅하고 있으며 맞춤이나 패턴오더로 진행하기 힘든 단점이 있다.

III. 디자인 기획

1. 라이프스타일 분석과 디자인 컨셉

현대사회가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게 되면서 자신을 표출하려는 개성화, 차별화 의식에 따라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이 나타나게 되었고, 이러한 라이프스타일은 서로 다른 구매욕구와 필요조건을 지닌 구매자들을 식별하게 하는 시장세분화의 변인으로 사용될 수 있기에 라이프스타일과 관련 있는 제품전략, 광고 및 촉진전략 등의 중요한 마케팅 전략자료로 이용된다.²⁴⁾ 이에 패션의류 상품 기획 과정 시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 구매형태, 소비동향 등 소비자 분석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므로²⁵⁾ 남성 예복 디자인 기획을 위해서 시장 정보 및 소비자 라이프스타일 분석 등은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남성예복 디자인 기획을 위한 라이프스타일 분석은 여러 선행 연구와 신문과 잡지의 트렌드 기사를 참조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30, 40대를 주류로 20대에서 60대까지 비교적 폭넓은 연령의 남성 소비자를 대상으로 삼았다. 라이프스타일 분류에 따라 주로 20, 30대의 젊은 층은 감각적인 패션을 추구하는 남성(집단 A)과 경제성을 고려하려 실용적이면서 보수적인 성향의 의생활을 추구하는 남성(집단 B)의 특성을 연구하였다. 또한 40, 50대의 보수적 성향의 의생활을 추구하는 남성(집단 C)과 무관심형의 남성(집단 D)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²⁶⁾ 각 타겟 집단의 라이프스타일 특성은 다음과 같다. 집단 A는 패션트렌드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개성이 넘치며 진취적이고 사교적인 성향을 가졌다. 집단 B는 단정함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동시에 충동적 소비성향이 적고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남성들이 많아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기며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지니고 있다. 집단 C는 유행보다는 변화가 적은 클래식에 매력을 느끼며 삶의 질을 중요시 여기며 가족과 사회적 관계를 중요시 여긴다. 마지막으로 집단 D는 건강관리에 관심이 많으며 환경에 대해 고민하며 편안함을 추구하고 삶의 방식에 있어서 고집과 철학이 확고하다.

이러한 라이프스타일 분석에 따른 컨셉으로 집단 A는 경쾌하고 개성적인 실루엣에 럭셔리한 이미지를 더하고, 집단 B와 집단 C는 모던함과 클래식을 동시에 추구하며 세련된 이미지를 강조한다. 집단 D는 편안함을 추구하는 여유 있는 실루엣에 우아하고 여성적인 이미지의 소품을 활용하여 고급스러움을 강조한다.

남성소비자들의 소비트렌드도 변화하고 있는데 과거와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첫째, 최근 들어 남성 예복은 특별한 날에만 입는 옷이 아닌, 일상복으로도 활용 가능한 옷으로 인식되고 있다. 실용성의 측면을 고려하여 평상시에도 입을 수 있으면서 한두 가지 액세서리만 더하면 화려한 예복이 되는 정장을 선호하여 예비신랑들은 예복으로 입을 옷을 따로 구입하지 않고 평상시에도 입을 수 있는 정장을 구입한다.²⁷⁾ 그래서 장식과 디테일이 화려한 정장보다는 심플하면서 럭셔리한 분위기의 기본 정장을 찾고 있다. 둘째, 최근 신사복 시장의 키워드는 ‘실루엣’이다. 과거에는 신사복의 색상과 스타일이 중요했지만, 남성의 몸 자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볼륨감과 곡선미를 살릴 수 있는 실루엣이 점차 주목 받고 있기 때문에 패턴은 남성소비자의 선택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예복도 마찬가지로이다. 예전엔 예복이라고 하면 중후하고 품이 넓은 신사복을 떠올렸지만 이제는 정형

화된 텍시도 보다는 세련되고 볼륨감 있는 실루엣의 수트가 대세다. 볼륨감과 입체감이 강조된 수트는 날씬해 보이면서도 남성다운 멋을 살려준다. 셋째, 넥타이핀과 커프스링크의 인기가 경기변화에 따라 남성소비자들 사이에서 다시 살아나고 있는데 이로 미루어 보아 경제적 여유만 뒷받침된다면 남성들도 화려하게 치장하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패셔너블한 20, 30대의 젊은 층에게는 주로 실루엣의 변화를 주어 바디라인을 강조하는 디자인을 제안하고, 중년 이상의 클래식한 감각을 지닌 보수성향의 남성들에게는 정통 예복의 여유 있는 실루엣에 감각적인 액세서리를 포인트로 강조하는 디자인을 제안하는 것이 요점이며, 전체적인 남성예복 디자인의 기본 컨셉은 클래식한 감성이 돋보이는 남성의 재킷과 팬츠에 부토니에²⁸⁾ 등 로맨틱한 액세서리들을 가미하여 강건하면서도 담담한 남성적인 실루엣과 부드럽고 유려한 여성적인 감성이 공존하는 새로운 이미지를 추구하였다. 스타일은 기본 형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디자인하되 해외 트렌드를 반영하여 젊은 감각에 맞는 슬림한 스타일로 품목별 개성을 살린 실루엣이 특징이다. 또한 소비자의 기호가 고급스러운 소재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졌기 때문에 정식 예복에는 우아한 광택이 나는 고급스러운 소재인 캐시미어와 텍시도 클로스, 섬머울 등 100% 울과 100% 울 플란넬, 100% 실크소재를 채택하였다. 그리고 셔츠에는 100% 면, 셔빙이나 안대를 목적으로 하는 유니폼 등 실용성을 강조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약식예복에만 혼용률이 울 95%, 폴리에스테르 5%인 소재를 사용하였다.


2. 디자인 기획

본 연구의 컨셉에 따라 정식예복에 해당하는 모닝코트, 연미복, 텍시도(블랙과 화이트)와 약식

<표 4> 모닝코트 일러스트레이션과 도식화, 색상 및 소재 코디네이션

모닝코트 일러스트	아이템	컬러	소재	
			S/S	F/W
	모닝코트	블랙	섬머울	울, 플란넬
	셔츠	화이트	코튼	코튼, 실크
	팬츠	그레이 모닝스트라이프	섬머울	울, 플란넬
	베스트	은회색	실크/린넨	실크
	보타이	은회색	실크	실크
	커머번드	블랙/은회색	실크	실크
	슈즈	블랙	페이턴트 가죽	페이턴트 가죽
	포켓스퀘어	은회색	실크	실크
	부토니에	화이트	실크	실크
모닝코트 도식화	재킷, 팬츠, 셔츠, 베스트의 순			
				

<표 5> 연미복 일러스트레이션과 도식화, 색상 및 소재 코디네이션

연미복 일러스트	아이템	컬러	소재	
			S/S	F/W
	연미복재킷	블랙	섬머울	울, 플란넬
	셔츠	화이트	코튼	코튼, 실크
	팬츠	블랙	섬머울	울, 플란넬
	베스트	실버	실크/린넨	실크
	커머번드	블랙	실크	실크
	타이	화이트	실크	실크
	부토니에	화이트	실크	실크
	포켓스퀘어	화이트	실크	실크
	레이스업 슈즈	블랙	페이턴트 가죽	페이턴트 가죽
연미복 도식화	재킷, 팬츠, 셔츠, 베스트의 순			
				

예복에 해당하는 디렉터츠 수트, 3-피스 수트, 네이비 블레이저로 총 7별로 구분하여 각각에 적합한 디자인을 도식화와 일러스트로 표현하며, 액세서리 및 전체 코디네이션은 포로 정리하였다.

1) 모닝코트


모닝코트는 저녁 6시 이전까지 입는 격식을 갖춘 정통 예복으로, 코트 햄라인이 둥글게 떨어지며 몸을 감싸는 실루엣이 특징이다. 기존의 볼륨감 있는 둥근 햄라인을 사선처리하여 보다 슬림해

보이도록 디자인하였다. 여기에 모닝스트라이프라 불리는 줄무늬 바지를 맞춰 입는데 바지의 허벅지 너비를 줄여 슬림핏(slim fit)을 추구하였다. 코디네이션은 은회색 실크 소재의 보타이와 블랙 혹은 타이컬러와 맞춘 커머번드를 제안한다. 또한 블랙 페이턴트 가죽으로 된 레이스업슈즈를 신고 실크 소재의 포켓스퀘어와 부토니에를 단다.

2) 연미복

연미복은 지휘자 등 특별한 의식을 갖출 필요

<표 6> 턱시도 일러스트레이션과 도식화, 색상 및 소재 코디네이션

턱시도 일러스트	아이템	컬러	소재	
			S/S	F/W
	턱시도재킷	아이보리/블랙	섬머울	울혼방
	핀턱셔츠	화이트	코튼	코튼, 실크
	데이핑팬츠	아이보리/블랙	섬머울	울혼방
	보타이	화이트/블랙	실크	실크
	페이턴트 슈즈	블랙	페이턴트 가죽	페이턴트 가죽
블랙 턱시도 도식화		재킷, 팬츠, 셔츠, 베스트의 순		
				
화이트 턱시도 도식화		재킷, 팬츠, 셔츠의 순		

가 있을 때 착용하며 앞부분의 커팅과 깊은 트임이 있는 뒷자락이 특징이다. 기존의 연미복보다 앞과 뒤의 다트를 몸에 꼭 맞게 조정하여 남성적인 실루엣을 강조하였고 앞에 두 쌍의 장식단추를 마주보는 사선으로 달아 역삼각 체형의 입체감을 살렸다. 바지는 밑위길이를 높이고 바지 부리 폭은 조정하지 않아 길이가 길어보이도록 디자인하였다. 연미복의 액세서리는 실크로 된 커머밴드로 블랙 혹은 타이컬러에 맞추어 착용한다. 포켓스퀘어는 실크로 하고 역시 실크로 제작된 부토니에를 단다. 구두는 블랙의 페이턴트 가죽으로 된 레이스업 슈즈를 신는다.

3) 턱시도 슈트

턱시도 슈트는 블랙과 화이트 두 가지 디자인을 제안하며, 연미복이나 모닝코트보다 수월하게 착용할 수 있는 착장으로 저녁의 행사에 적합하다. 블랙턱시도는 피크드 라펠, 화이트턱시도는 솔칼

라 라펠이 특징이며, 핀턱 디테일의 셔츠와 함께 착용한다. 기존의 턱시도보다 몸에 피트되는 스타일로 재킷의 소매와 몸판의 라인이 감각적이다. 바지의 허리둘레를 제외한 엉덩이둘레, 바지부리, 밑위길이를 조정하여 좀 더 타이트하며 다리가 길어 보이는 효과를 나타냈다. 블랙턱시도의 팬츠 옆선에는 테이핑을 덧대어 장식하였다. 턱시도셔츠는 보타이를 위한 윙칼라 셔츠를 착용한다. 화이트 턱시도는 베스트가 없는 디자인이며, 보타이는 아이보리 색상의 실크 소재를 선택하였다. 블랙 턱시도의 보타이는 검정색 실크로 착용한다. 구두는 반드시 페이턴트 슈즈를 신는다.

4) 디렉터즈 슈트


약식 예복으로 모닝코트나 연미복 등에 비해 부담 없이 착용할 수 있는 디렉터즈 슈트는 블랙 재킷과 모닝스트라이프 팬츠 등을 기본으로 하며, 보타이는 물론 격식을 갖춘 애스콧타이를 착용할

<표 7> 디렉터즈 슈트 일러스트레이션과 도식화, 색상 및 소재 코디네이션

디렉터즈슈트 일러스트	아이템	컬러	소재	
			S/S	F/W
	재킷	블랙	섬머울	울, 플란넬
	셔츠	화이트	코튼	코튼, 실크
	팬츠	그레이 모닝스트라이프	섬머울	울, 플란넬
	베스트	실버	실크/린넨	실크
	보타이	그레이	실크	실크
	포켓스퀘어	블랙	실크	실크
	부토니에	퍼플	실크	울
	레이스업슈즈	블랙	가죽	가죽
디렉터즈 슈트 도식화	재킷, 팬츠, 셔츠, 베스트의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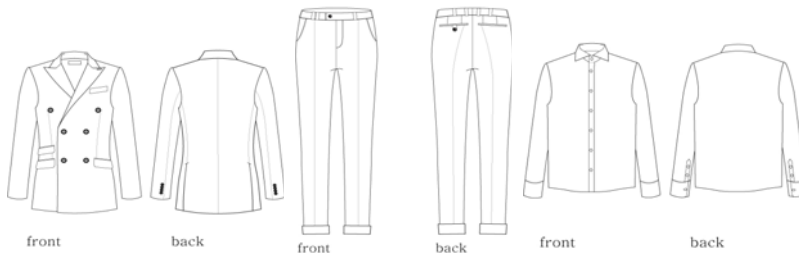
<표 8> 3-피스 슈트 일러스트레이션과 도식화, 색상 및 소재 코디네이션

3피스 슈트 일러스트	아이템	컬러	소재	
			S/S	F/W
	재킷	다양하게 가능	섬머울	울, 플란넬
	셔츠	화이트	코튼	코튼, 실크
	팬츠	다양하게 가능	섬머울	울, 플란넬
	베스트	다양하게 가능	섬머울	울, 플란넬
	부토니에	블루	코튼	코튼
	포켓스퀘어	화이트	코튼	코튼
3피스 슈트 도식화	재킷, 팬츠, 베스트의 순			



<표 9> 블레이저 색상과 소재 코디네이션

블레이저 일러스트	아이템	컬러	소재	
			S/S	F/W
	재킷	네이비	섬머울	울, 플란넬
	셔츠	화이트	코튼	코튼, 실크
	팬츠	그레이	섬머울	울, 플란넬
	부토니에	블루	코튼	코튼
	포켓스퀘어	화이트	코튼	코튼
	구두	브라운	가죽	가죽
블레이저 도식화	재킷, 팬츠, 셔츠의 순			



수 있다. 다른 예복과 마찬가지로 몸에 피트되는 재킷과 팬츠가 보다 슬림하면서도 남성의 특징적인 골격과 라인을 살려준다. 실크소재의 포켓스퀘어에 블랙 가죽으로 된 레이스업 슈즈와 함께 코디네이션이 가능하다. 디렉터즈 수트는 앞으로도 예복으로서의 선호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5) 3 피스 수트

일반적으로 남성의 수트는 재킷, 팬츠, 베스트를 함께 갖추어 입는 3피스가 가장 포멀한 착장이다. 셔츠와 재킷의 소매 길이를 조정하였으며 총장과 바지통과 부리, 길이 등의 사이즈를 슬림핏을 위하여 즐기거나 늘어 남성수트의 모범 답안을 보여주는 실루엣을 완성하였다. 3피스 수트 착장시 부토니에, 포켓스퀘어 등으로 코디네이션 할 수 있다.

6) 블레이저

네이비 블레이저는 네이비 컬러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포멀한 이미지가 잘 어울리기 때문에 약식 예복으로 입어도 무방하다. 더블 여밈으로 제작된 네이비 블레이저는 짧은 감각에 맞게 적당한 라펠의 넓이와 슬림한 실루엣으로 디자인하였다. 블레이저와 함께 매치되는 팬츠는 울 소재의 그레이 팬츠가 가장 잘 어울리며, 화이트, 그린, 오렌지 등 컬러의 제약은 없다. 디자인 특징은 바지의 경우 허벅지와 바지 부리를 슬림하게 디자인하였으며, 짧은 길이의 턴업 팬츠는 신장을 더욱 돋보이게 해준다. 조직감이 있는 소재와 독특한 느낌을 추구했으며, 시즌에 맞는 밝은 컬러의 자개단추 사용으로 경쾌한 느낌을 부여했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예식형태의 다양화 및 파티문화의 확대 등 최근 현대사회의 변화를 인식함과 동시에

보다 다양하고 개성있는 디자인의 남성예복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브랜드 현황 및 타겟의 라이프스타일을 분석하고 컨셉을 구체화하여 새로운 남성예복을 기획하였다. 서양의 남성예복은 격식과 정통성이 중요시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남성예복이 시간과 장소에 맞지 않게 입혀지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T.P.O.에 맞는 적절한 남성예복으로 정식예복에 해당하는 모닝코트, 연미복, 턱시도와 약식예복 개념의 디렉터즈 수트, 3-피스 수트, 블레이저 등을 기획하되 소비자의 구체적인 디자인 니즈를 반영하여 클래식하면서도 트렌디한 감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기획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디자인에 맞는 소재표현과 패턴 개발 및 구체적인 봉제 기술법 등은 후속 연구 과제로 남기며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과 추구하는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감성과 문화를 반영하여 시대에 맞는 디자인의 남성예복을 기획하여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둘째, 이를 위하여 최근 트렌드 조사 및 국내외 남성복 브랜드 현황을 토대로 타겟의 라이프스타일을 분석하고 컨셉을 구체화하였다. 셋째,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상황과 목적에 적합한 예복디자인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적합한 다품종 소량 주문생산에 가능한 기술력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여 낮은 비용으로 생산, 공급함으로써 개성을 표출하는 의류소비에 적용 가능성을 높여 도록 한다. 이상의 결과는 오늘날 남성예복 디자인에 현대인의 개성과 감성에 맞는 형태를 창조하고 예복의 용도와 영역확장에 기여하며, 남성예복 분야에 있어 마케팅 수요를 넓혀 국내외 시장의 저변을 확대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초 작업의 일환이라 생각된다.

참고문헌

- 1) Loschek, I. & Schmid, B. (1999). 패션의 클래식, 황현숙 옮김 (2001). 서울: 예경, p.11.
- 2) Hollander, A. (1995). *Sex and Suits*, New York: Kodansha Globe Book, pp.3-10.
- 3) 정홍숙 (1997). 서양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p.351.
- 4) 남윤자, 이형숙 (2005). 남성복 패턴 메이킹, 서울: 교학연구사, p.55.
- 5) 남성 예복 이야기(2) (2001. 5. 30). 삼성디자인넷, 자료검색일 2010. 2. 1. <http://www.samsungdesign.net>
- 6) 정홍숙. 앞의 책, p.351.
- 7) 유송옥 외 (1996). 복식문화, 서울: 교문사, pp.61-62.
- 8) 문화관광부, 한국복식문화 2000년 조직위원회 (2001). 우리 옷 이천년, 서울: 미술문화, pp.120-121.
- 9) 두산백과사전 EnCyber(검색어: 모닝코트), 자료검색일 2010. 2. 15. <http://www.encyber.com>
- 10) 신영일 (1993). 신사복 이야기, 서울: 서광홍보실, p.130.
- 11) 한성지 (2008). 패션상품디자인, 서울: 교학연구사, p.188.
- 12) Flusser, A. (2002). *Dressing the Man*, New York: Harper Collins Publisher, p.234.
- 13) Julian, T. (2009). *Nordstrom Guide to Man's Style*, San Francisco: Chronicle Books, p.135.
- 14) Esquire (2009). *The Handbook of Style*, London: Hearst books, p.37.
- 15) Julian, T. 앞의 책, p.134.
- 16) 포켓행커치프라고도 하며, 부토니에, 타이 등과 함께 예복 코디의 정수를 이루는 액세서리이다. 포켓스퀘어의 테두리는 손바느질을 통해 만들어져 정통성이 강조되었으며, 실크, 린넨, 면 등의 다양한 소재가 쓰인다.
- 17) 권지현, 김영인 (2008). 현대 여성 수트에 있어서 남성성을 나타내는 색채 특성, 복식, 58(2), p.67.
- 18) 신명진 (1988). 남성수트에 나타난 복고풍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
- 19) 이미숙 (1999). 샤넬 수트 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 복식, 48(-), p.200.
- 20) Botegaveneta, Costumenational, Louisvitton, Paulsmith의 순
- 21) 산출근거: 09/10 패션시장분석 (2010. 1. 7). 삼성디자인넷, 자료검색일 2010. 1. 13. <http://www.samsungdesign.net/Market/MarketReport/list.asp?an=37> & 산업자원부, 전국경제인연합회, AT컴퍼니 (2008). 복종별 시장분석: 남성복 2015 산업발전 비전과 전략, 패션저널, 12월, p.1.
- 22) 김은경 (1988). 남성 결혼예복 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111.
- 안현주 (1995). 로코코 복식을 응용한 현대 남성예복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119.
- 이미정 (1985). 의식에 착용한 예복에 관한 연구: 17세기 이후 영국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116.
- 양숙향 (1989). Rococo시대의 복장형태에 관한 고찰: 1715~1780년 프랑스의 경우,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61.
- 조명숙 (1991). 남자복식의 칼라와 복장식에 관한 연구: 17세기~19세기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114.
- 최연정 (1991). 남성 결혼예복 디자인 개발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110.
- 23) 위 내용들은 남성복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들과의 회의 결과 간추려진 브랜드 임.
- 24) 권수에 외 (2008). 패션과 라이프, 서울: 교학연구사, p.245.
- 25) 배정숙, 류현혜, 조은영 (2003). 성인여성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메이크업제품 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1(12), p.134.
- 26) 최유돈 (2002). 국내 여성복 브랜드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과 최신 패션트렌드 선호도에 따른 패션상품기획의 모색,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137.
- 27) 박소민, 이주현 (2002). 소비자(消費者) 선호도(選好度) 및 라이프스타일 분석(分析)에 기초(基礎)한 의류상품기획(衣類商品企劃)의 제안(提案): 남성(男性) 정장류(正裝類)의 캐주얼화 트렌드를 중심으로, 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 6(5), p.67.
- 28) 정형화된 텍시도는 이제 그만 (2008. 2. 4). 우먼뉴스 웹프, 자료검색일 2010. 2. 5. <http://news.wef.co.kr/43104>
- 29) 남자의 성장에 꼭 필요한 액세서리로, 신부의 부케를 근원으로 출발하였다. 카네이션 또는 올리브 열매를 결혼식이나 생일, 장례식 등 공식적인 행사에 장식하는 것이 현대에 와서 액세서리의 형태로 재조명 받고있다. 생화의 단점을 보완한 드라이플라워를 이용한 부토니에의 시도는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핸드메이드를 통한 실크, 캐시미어 등의 사용으로 미적인 형태와 실용성을 높였다.

Analysis and Planning for Modern Men's Formal Wear

Kim, Jung Hee · Cho, Hyo Sook · Lim, Hyun Joo⁺

Professor, Dept. of Clothing, Kyungwon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Clothing, Kyungwon University

Doctoral course, Dept. of Clothing, Kyungwon University⁺

Abstract

Individualism and variety-seeking are two of the important characteristics of the modern day consumer. With the advent of new party and wedding culture, there has been an increasing need for new designs for men's formal attire: suits.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range of new designs for men's suit that is time, place and occasion-appropriate and also is classic and timeless but caters to the modern tastes and sensibilities at the same time. The study will also help establish good formal wear culture for men and make men's suit more popular and staple clothing item for general male population. The study consisted of literature review that examined the history of men's formal attire and market research which analyzed the trends for men's formal attire. As a result, the execution process of new men's formal attire consisted of deciding on a design concept, design, and pattern that satisfies modern men. New silhouette and design details were illustrated and appropriate fabrics, styling and coordination were organized into a table. By suggesting new designs, this study clearly defines men's formal-morning coats, tail coats and tuxedos, and semi-formal attires-director's suit, three-peaces suit, navy blazer and help establish the norms for men's formal wear

Key words: men's formal suit design, morning coat, tail coat, tuxedo, suit